



이 글은 1988년 진로에서 발간한 '술의 세계'에 게재된 소설가 김주영님의 글을 인용 게재한 것입니다.



음력 초닷새나 스무닷새 무렵의 조각달이 산허리에 기우뚱 걸려 있고, 겨우 대여섯 발자국 앞길만 분별할 수 있는 좁은 산협(山峽) 길에는 인적이 행하다. 길손은 선머리에서 걸어가는 나귀의 위낭소리가 계곡에서 흐르는 쪽빛 벽계수 위로 흘러가는 것을 들으며 상습적으로 나귀의 엉덩이에다 채찍을 내린다. 때마침 연도에는 들깨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제 뜬마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한다. 나귀에게 한 번 더 채찍을 내린다. 채찍을 받은 나귀는 두어 걸음을 힘주어 걸을 뿐 게으름을 피우며 걷던 버릇을 고치려 들지 않는다.

산굽이 하나를 돌아나가자니,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는 저만치 아래로 멀어지는데, 길손의 귀에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 듯하다. 그러나 길손이 개 짖는 소리를 들었을 땐 나귀도 이미 주막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터득해서 눈치 챈 것이다. 길손이 채찍을 내리지도 않았건만 나귀는 제출물로 등에 얹힌 복물(卜物) 바리를 가볍게 추스르면서 걸음이 빨라진다.

산자락을 돌아나가 보니 눈앞이 확트이는 개활지가

나서고, 개활지에는 길길이 자란 억새가 밤바람에 서걱이고 있다. 작은 여울이 개활지를 가로지르고 있고 여울에는 징검다리가 놓여있다. 길손이 행진(行纏)을 풀고, 길목 버선을 벗고, 바지를 걷고, 미투리를 벗어 챙길 때까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귀는 여울가에 핀 잡초를 뜯는 척한다. 채비를 마친 길손이 고삐를 아금받게 다잡아 쥐자 나귀는 침병 돌이끼가 미끄러운 여울로 뛰어든다. 나귀와 걸음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여울을 건너오면 산자락 아래 뜬마을의 불빛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이제 길손은 고삐와 채찍을 나귀 잔등 위에다 얹어 버리고 나귀가 저 혼자 견도록 버려둔다. 이제 주막 거리가 엷어지면 코 닿을 행보에 있으니 그대로 두어도 나귀는 단골 주막으로 찾아들 줄 알겠기 때문이다. 길손 역시 벗었던 길목 버선과 행진을 다시 치고 췌 번거로움을 겪을 까닭이 없다 생각하고 맨발에 짚신을 꿰고 벌써 열댓 간 앞에서 걷고 있는 나귀를 종종 걸음으로 따른다. 나귀의 코에는 벌써 구수한 여물 냄새가 감돌고 길손도 한 주발의 탁배기 냄새에 벌써 목이 칼칼하다.

길손과 나귀가 들어선 주막 거리는 대처로 나가는

황토길이 세 갈래진 곳이다. 시각은 많이 늦어 이경(二更) 해시(亥時)를 넘겼으니 한저녁을 시켜 먹기에도 겨운 때였다. 그러나 길손이 굳이 이 주막까지 행보를 재촉했던 것은 이 곳에서 자야만 다음날 장이 서는 저자 거리에 닿기가 수월했기 때문이다. 뜰마을 외진 주막 거리여서 기찰을 하는 순라군(巡邏軍)도 없고 삼작 밖으로 쫓아나오면서 짓던 개는 길손이 진작부터 드나들던 단골 길손임을 알아보고 짓던 주둥이로 길손의 바짓가랑이를 훑는다.

주막의 올바자 곁에는 긴 장대가 걸려 있고 장대 위에는 용수술이나 장을 거르는 데 쓰는, 대나 싸리로 만든 길쭉한 통을 씌워 두거나 주둥(酒甕)이나 주기(酒旗)를 달아서 주막임을 알린다. 길손이 삼작을 밀고 들어서면 선잠에서 깬 주모(酒母)가 토방으로 내려서면서 한저녁 지을 준비를 하고, 식주인(食主)이나 중노미(주막에서 허드렛일을 거드는 사람)가 나와서 마방(馬房)으로 나귀를 몰아넣고 여물을 먹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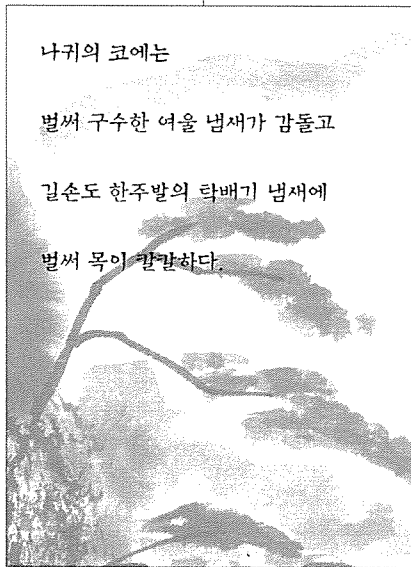
복물을 봉숫방에다 내린 길손은 먼저 와서 자고 있는 선객들을 밀치고 때기름이 껌뻑뻑한 목침을 끌어당겨 저녁 동자할 때까지 쉬기로 하는 것이다.

〈숫막〉이라고도 부르는 주막은, 이를테면 나그네가 하룻밤 쉬어가는 여인숙인 셈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새겨 둘 일은 주막인 경우 식대(食代)만을 받았지 숙박

료(宿料)는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막 영업의 주종은 길손을 재우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허기진 길손에게 장국밥 요기나 탁배기를 팔아서 푼전을 챙기는 것이었다. 옛적 엽전을 쓰던 때에는 술 한 잔에 두 푼이었고 안주를 먹지 않으면 한 푼을 건네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동전(銅錢)을 썼을 때는 5푼짜리 둘에 한 잔이고 술만 마시면 한 푼을 받았다. 화폐 개혁이 된 뒤로는 5전에 한 잔이었고 술만 마시면 3전을 받았다. 그러나 산협에 있었던 주막에서는 그나마 셈술에 어두운 주모가 길손 사이에 서로가 양해되는 선에서 적당히 물물 교환 등으로 거래되었다. 주막에는 성긴 나무 판자로 잇댄 목로가 놓여 있기 마련이었고, 목로가 없는 주막에서는 텃마

루나 평상으로 길손을 모시고 거덜뭇이 들성들성 박힌 개다리 소반에 술 한 방구리를 엮고 깍해야 된장떡이나 군동내나는 찐지를 곁들여 내어올 뿐이니 옛날의 주막을 경영하던 사람들은 그 영업을 결코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다. 물론 대처의 목로 술집으로 나가면 진안주로는 너비아니·날툰고기·삶은 톨고기·편육(片肉)·빈대떡·떡산적과 시절에 따라 구운 생선과 회와 젓갈이 있고 마른 안주로는 우포(牛脯), 어포(魚脯) 등숙을 탁배기와 곁들여 팔았다. 대개의 길손들은 주막에 들러 나귀에게 여물을 얻어 먹이거나 신



나귀의 코에는
별써 구수한 여물 냄새가 감돌고
길손도 한주발의 탁배기 냄새에
별써 목이 갈갈하다.

들매를 다시 한 번 고쳐 매는 등 채비들을 정돈하고 허기를 끄고 난 뒤 곧장 길을 뜨기 마련인데, 주막의 식주인이나 주모로부터 앞으로 남은 노정(露程)에 대한 정보를 수소문해 듣기도 하였다.

나귀를 몰고 장삿길에 나선 선 길 장수와, 지계에 돌솥과 소금 단지와 훗바리를 주렁주렁 매단 등짐 장수며, 투전판을 찾아다니는 설레꾼 건달들과, 저자로 드나드는 타관바치와, 해질녘 한 잔의 탁배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고 들른 천리 행보를 앞둔 과거꾼들과, 야반 도주하는 타관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드나들었고 식주인과 주모는 그들을 안면 박대로 낮가림하는 법이 없이 혼연 대접하였던

것이였다. 탁배기를 담은 질항아리 속에 술구기(술을 푸는데 쓰는 도구)를 담고 있다가 한두 잔 술로 심에 차지 않아 하는 길손이 있으면 서슴없이 텃거리 한 잔을 건네주는 푸짐한 인정이 그곳에 있었다.

주막에 기대어 연명하는 여자들도 없지 않았다. 잔술을 파는 들병이가 있었다. 들병이는 주막에서 동이술을 떼어다가 길손들의 내왕이 번다한 길목에 나가 앉아서 잔술을 팔며 추파를 던지다가 살꽃(肉花)을 팔기도 하였다. 혹은 주막 그 자체에 막창(幕娼)이나 <통지기>로 불리는 조개 장수들이 기생하고 있으면서 객

회가 스산한 숙객(熟客)에게 아랫품을 팔고 해우채(解衣債: 회대)를 챙기는 수도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주인 주모(酒母) 스스로가 길손에게 시침(侍餐)을 들기도 하였고 눈이 맞고 배짱이 맞으면 지향 없이 살아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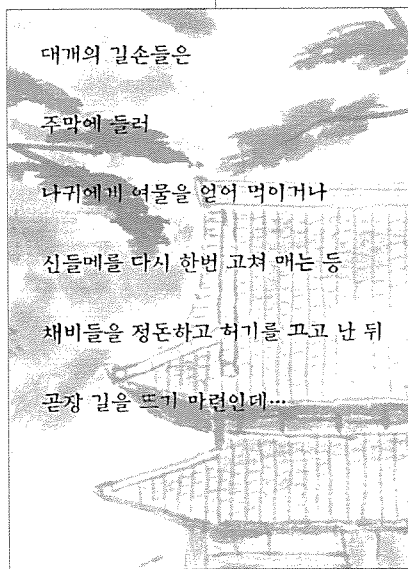
정인(情人)을 따라 나이 많은 영감을 소박놓고 야반 도주를 결행하는 수도 있었다.

식주인은 잠상(潛商)꾼들의 접주(接主) 노릇도 하였고, 설레꾼들에게 봉노를 대여하고 노름돈 개평을 뜯는 외주(窩主) 노릇도 하였지만 요사이처럼 밀린 식채(食債: 외상값)를 받으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공갈에 으름장을 놓는 못된 버릇들은 없었다. 이번에 식채가 없으면 다음 파수에 지날 때 받게 될 것이고,

설령 길손이 식채를 떼먹고 도망을 간다 하여도 언젠한 번은 다시 주막에 들러 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골 주막집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비숍 여사의 여행기에서 빌어올 수 있다.

“처마 밑에 말먹이통과 말뚝이 있음으로써 겨우 여관인가 하게 된다. 장지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서면 흙으로 된 바닥에 거적자리를 깔 것이 방이다. 각재(角柵)를 5, 6치 정도 켜서 자른 베개 대여섯 개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다. 이 베개가 암시하는 것처럼 이 방



대개의 길손들은
주막에 들러
나귀에게 여물을 얻어 먹이거나
신들매를 다시 한번 고쳐 매는 등
채비들을 정돈하고 허기를 끄고 난 뒤
곧장 길을 뜨기 마련인데...

은 나그네 한 사람이 결코 독점할 수가 없다. 빈부의 차별도 남녀의 구별도 없이 되는대로 몰아넣는 것이 관례인 것이다. 청소라 해서 별다른 공력을 들이지 않았다. 거적자리를 털어서 먼지를 한쪽 구석에 쓸어 모을 뿐 그 동안 먼지가 뽀얗게 방에 쌓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먼지는 결국 청소하기 전에 비해서 추후도 감소되지 못할 따름. 이 먼지는 실로 무수한 이(虱)며 빈대의 소굴인 것이다. 따라서 조심없이 누울 양이면 이들의 공격으로 한잠도 잘 수가 없다.”

그러나 비숍 여사의 관찰이 좀 더 진지했더라면 그녀는 주막집 사방의 토벽에 친 난초 그림을 보았을 것이다. 그 난초 그림은 실은 수많은 빈대와 이가 길손들의 손가락에서 죽어간 핏자국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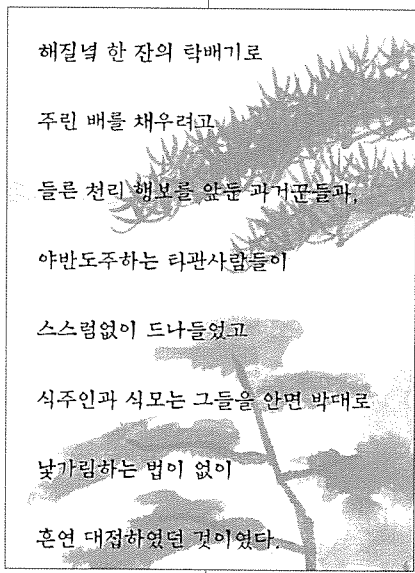
어찌 물건들이 그것뿐이었을까. 등어미·각다귀·버마재비·바퀴·바구미·그리마·당비루·쉬파리까지 등쌀을 피워서 잘못 걸리면 발을 동동 구르고 자야 하는데 그러나 길손들은 개의치 않고 하룻밤 단잠을 빼앗기지 않았다.

주막이 서민 경영의 여인숙이라 하면, 보행 객주(歩行客主)라는 곳은 주로 지체 높은 길손들이 묵던 곳으로 주막보다는 한수 위였다. 그 외에도 원(院)이나 역(驛)은

관영(官營)의 여숙이라 할 수 있었다. 즉 공문서의 체전(遞傳)과 관물(官物) 운송 또는 관리들이 공무를 띤 여행에는 관비로 설치한 원이나 역에서 묵어 갔다.

서울에는 주막에서 진보한, 이를테면 요사이로 봐서 망석집이라 할 수 있는 색주가(色酒家)도 있었다. 색주가는 홍제원(弘濟院)과 남대문 밖 쟈배(紫峯)와 파고다 공원 뒤쪽 탑골(塔洞)에 성행하였다. 이 색주가의 포주들은 거의가 월패로서 포도청(捕盜廳) 포교(捕校)들의 꼬나불들이었다. 색주가로 팔려 온 여자들은 가벼운 범죄자의 소생들이거나 위험당하거나 유인되어 온 산첩의 어수룩한 여자들로 이곳에서 잡가(雜歌)를 부르고 웃음을 팔아야 했다.

이렇듯 주막은 조선 팔도 전국 방방곡곡 삼육다섯 고을의 길목, 선착장(船着場)이며 저자 거리에는 말할 것도 없고 광산촌과 산간 벽촌일망정 으레 존재하였다. 가래뿔이 서 하룻밤을 묵어 가던 길손이건, 한 자배기의 탁배기로 목을 축이러 온 마을 장정이건, 이곳은 그들의 좋은 휴식처였고, 세상사의 물리를 익히는 경험의 장소였고, 소박한 인정이 꽃 피는 장소였고, 타관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장소여서 우리의 질박한 서민 문화가 용트림하고 만개하던 곳이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다.



해질녘 한 잔의 탁배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고
 들른 천리 행보를 앞둔 과거꾼들과,
 야반도주하는 타관사람들이
 스스럼없이 드나들었고
 식주인과 식모는 그들을 안면 밖대로
 낮가림하는 법이 없이
 혼연 대접하였던 것이었다.